



전남도·목포대·순천대, 국립의대 유치 힘 모은다

“의료여건 개선·지역소멸 대응” 선언문 발표
동·서부권 경쟁 관계→‘협업 모드’ 전환 주목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신규 설립을 위해 전 남도와 국립 목포대·순천대가 손을 맞잡았다. 특히 의과대학 유치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부권과 서부권을 대표하는 국립대 2곳이 국립의대 유치 경쟁 관계를 벗어나 ‘협업 모드’로 전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7일 도청 귀빈실에서 목포대·순천대와 함께 도민 의료여건 개선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공동 협력을 골자로 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 협력 선언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해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 공동협력 선언문에 서명했다.

전남도와 목포대·순천대는 선언문을 통해 ▲전남도민의 의료여건 개선과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 타개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양 대학 간 역량 집중 및 상호 협력 강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신설 반드시 포함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아 공동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회는 조만간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동 협력 선언’은 정부와 의료계에 보내 의대 설립의 절실함을 한 목소리로 전달하고, 국립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전남지역 양대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에 국립의대가 설립되도록 함께 역량을 집중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대학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공동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민의 의과대학 유치 열망이 큰 것은 열악한 지역내 의료현실 때문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상급종합 병원도 없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 달한다. 1인당 의료비는 21만9천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다.



공동협력선언문 발표 7일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공동협력선언문 발표에 참석한 이병운 순천대 총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철 목포대 총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은 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인 48.9%에 이른다. 전국 평균 23.3%보다 25.6%p나 높다. 중증 외상환자의 40.7%도 타 시·도로 전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80만명 도민이 타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1조 5천억원의 비용이 타 지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2개 대학이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한 공동 협력이 적극 나선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의료현안 협의체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시 의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이 반드시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앞으로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양 대학 간 협력 방안이 구체화될 바란다”며 “지역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보내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이날 공동 선언에 이어 김 지사는 8일 오후 서울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9일엔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문단은 勞政 대화 창구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이 7일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7년 5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노정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광양 지역 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경사노위를 완전히 탈퇴할지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다. 민주노총은 1990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5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완전히 닫히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 집행부,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지역본부의 장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열띤 토론 끝에 김동명 위원장은 “우리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사노위 참여는 전면 중단으로 하되 어떤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며 동의를 구했고, 참석자들이 박수로서 동의하자 회의는 끝났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아동인구 6년새 11만6천명 급감

●호남통계청 ‘아동가구 양육환경변화상’

2021년 기준 광주 5만9천명·전남 5만7천명 ↓
父 육아휴직률 5% 못미쳐...母와 5배 격차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 속 광주·전남 아동 인구가 최근 6년 사이 11만6천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많은 출산 장려책이 시행됐음에도 지역 내 남성 육아 휴직률은 여전히 5%에도 미치지 못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환경변화상’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아동(만 18세 미만인 자)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1년 11월1일 기준 광주·전남 아동인구는 각각 2만5천명, 2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6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할 때 광주 아동인구(2만2천명→2만3천명)는 5천9천명(-20.2%), 전남은(30만6천명→24만9천명) 5만7천명(-1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 아동가구 또한 각각 14만3천가구, 14만7천가구로 6년 새 각각 3만2천가구(-18.2%), 2만9천가구(-16.4%) 줄었다.

6년 새 광주·전남의 가구 내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 1

명인 가구 비중은 증가했다. 재정 부담이 줄었음에도 오히려 외벌이는 감소했고 맞벌이 가구는 늘었다.

2021년 기준 양부모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 비율은 광주 72.5%, 전남 67.4%다. 2015년 대비 각각 8.3%p, 9.6%p 증가한 수치다. 양 지역 모두 맞벌이 가구 비중이 6년 새 10% 가까이 늘었다. 외벌이 가구 비율은 광주(33.3%→26.1%) 7.2%p, 전남(37.7%→29.8%) 7.9%p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아동이 1명인 가구 비율은 광주 47.6%(2.1%p ↑), 전남 47.1%(0.6%

p ↓)였으며,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는 광주 21%p, 전남 0.6%p 줄었다.

이와 함께 남성의 육아 휴직률이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5% 선을 넘지 못했다. 실제 2021년 기준 남성 상시근로자 육아 휴직률은 광주 3.5%, 전남 3.4%다. 2015년 광주 0.5%, 전남 0.4%와 비교할 때 7~8배 이상 확대됐음에도 여성 육아 휴직률(광주 18.6%, 전남 16.8%)과 5배 이상 격차가났다.

박영희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팀장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결과, 남성의 육아 휴직률이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과 큰 격차를 보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시원 기자

Today	
新농촌 꿈꾸는 청년 농업인	9면
남도 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14면
세트 피스로 ‘빚장수비 뚫어라’	16면

전라남도 전통시장

맛의 고장 전라남도!
시장과 사람들

**그리고 특산물이
함께하는 플랫폼**

QR코드 스캔하고 회원가입 해보세요.

검색창에 '별빛장터'를 검색하세요!

www.별빛장터.com

전라남도 전통시장, 별빛장터

별빛장터는 시장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드립니다.

신규 회원가입 이벤트

**별빛장터 회원가입하고
루벤 텀블러 세트 받기!**

별빛장터 사이트에 회원가입(이메일)을 중
수정을 통해 매일 20분씩 루벤 텀블러를 드립니다.

전라남도 전통시장, 별빛장터

별빛장터는 시장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드립니다.

신원마을상인연합회

전라남도 | 순천시 | 구례군 | 고흥군 | 영광군 | 전라남도상인연합회